

남북 대표들 미소 띤 얼굴에 “반갑습니다” 악수 ... ‘화기애애’

2년 4개월만의 남북 당국간 접촉

하루 4차례 수석대표 회담 쟁점조율

장관급 회담을 위해 9일 열린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무 문제들을 비교적 협조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때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통일부가 이날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여성 대남일꾼’으로 관심을 끈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다른 북측 대표들과 함께 오전 9시40분께 관문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록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흰색 가방을 든 김 부장은 자신들을 마중 나온 우리 측 구본식 관문점 연락관과 악수를 한 뒤 군사분계선을 건넜다.

북측 대표단은 곧바로 회의 장소인 관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으로 들어섰고, 미리 현장에서 기다리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들을 영접했다.

미소를 띤 김 부장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우리 대표단 3명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북측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 부

자의 사진이 나란히 실린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아 태극기 배지를 부착한 우리 대표단과 대조를 이뤘다.

이어 회의장에 동시 입장한 양측은 김 부장과 천 실장을 가운데에 놓고 각각 3명씩 회의 석상에 마주 앉았다. 양측의 뒷쪽으로는 연락관이 한 명씩 배석했다.

천 실장은 회의장 입장 후 사진 촬영을 위해 악수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천 실장이 먼저 “오랜만에 하는 회담이다. 날씨가 좋는데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인사를 건네자 김 부장은 “몇 년 만에 진행되는 회담인데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날씨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 부장은 “어제 (관문점 근처로) 내려왔다. 평화의 집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에서 천 실장은 “실무 접촉이니까 실질적으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만큼 바로 협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북측 대

표단도 이에 호응했다.



손잡은 남북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진 9일 오전 관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표단도 이에 호응했다. 통신 장비 설치 관계로 예정 시각을 조금 넘긴 10시13분께 시작된 전체회의는 11시 정각에 오전 일정을 마쳤다.

김형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논쟁 없이 차분하게 실무접촉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웠음을 밝혔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2일 장관급 회담의 북측 대표단 구성 등과 관련해 양측이 이견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무대표 ‘남남북녀’ 이름도 닮았다

南 천해성, 회담 경험 풍부
北 김성혜, 여성 대남 일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9일 관문점 실무접촉에 남측은 남성이, 북측은 여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천해성 실장은 1964년생으로 통일부에서 인도협력국장 and 대변인, 남북 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열린 제15~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각종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풍부한 회담 경험이 있다.

북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김성혜 조평통 부장은 대남접촉 경험이 많은, 북한에서 보기 드문 ‘여성 대남 일꾼’으로 평가된다.

1965년생으로 천 실장보다 한 살 적은 김성혜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특별수행원을 안

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2006년에는 6·15 남북 당국 공동행사의 보장성원(안내요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제15~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했다.

이 회담에는 우리측 천해성 실장도 참여했기 때문에 남북 수석대표는 구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여성을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은 남측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과 연관된 것이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김성혜는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방북 조문 당시 개성에서 이 여사를 영접하기도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일행이 방북했을 때 영접과 환송을 맡았다.

김성혜는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설이 돌고 있으며 그를 만나본 남측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측 대표단인 황총성·김명철의 경우도 남북 회담 및 행사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연합뉴스

꼭 막힌 대북교류 돌파구 기대

6년만에 재개되는 남북 장관급회담 ... 21차례 열리다 MB정부 때 중단

남북 당국이 장관급 회담의 12일 서울 개최에 의견을 모으면서 6년 만의 회담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그해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남북한에서 번갈아 가며 최소 1년에 2차례 이상 열려 왔다.

회담은 대부분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지만, 2000년 9월 3차와 2005년 12월 17차 회담은 제주도에서, 2001년 11월 6차 회담은 금강산, 2006년 7월 19차 회담은 부산에서 열렸다.

그동안 회담에서는 남북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각종 위원회

의 출범 등의 문제가 협의돼 왔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과 달리 북한은 경제 분야에 치중하는 내각 참사를 내세움에 따라 장관급 회담이 북한 핵과 분단 문제 등 근본적인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도 받았다.

가장 최근의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흥은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대북 쌀 차관이 지연되는 상황에 막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0월 정상회담과 11

월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장관급 회담이 단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실무자금을 포함한 모든 회담도 2007년에는 한 해 동안 55회 열렸지만, 이듬해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6회, 2010년 8회, 2011년에는 단 1회만 열렸다.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로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국방장관 회담은 좀처럼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난 후인 2007년 11월 평양에서 2차 회담을 열었다.

연합뉴스

野 “남북 국회회담도...” 與 “지금은 너무 빨라”

남북 간 대화무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과 같이 당국 간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민간차원의 교류 또는 국회 차원의 교류(를 위한) 통로가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원내대표가 국회회담 등 새로운 교류협력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같은 날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국면에서 결국 당국자 회담은 정부의 몫이지만 민주당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남북 국회회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9일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교류가 남북관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일정 계도에 오른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의 여건이 성숙하기 전에 이뤄지는 국회회담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남북 국회 간 교류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고 당연한 귀결점”이라면서도 “지금은 너무 이른 얘기고, 정부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남북 국회회담이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의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www.kofc.or.kr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KOREA FINANCE CORPORATION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 정책금융상품, 온렌딩 대출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으로, KoFC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친화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상품입니다.

자금공급 → 은행 [중개금융기관] → 지원기업선별 → 중소기업

낮은 금리비용
KoFC의 우수한 신용력으로 조성한 저리자금을 지원, 기업의 금리비용 절감에 도움

편리한 이용
기존 거래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문으로 원스톱 서비스 가능

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시설자금 최장 10년, 운전자금 최장 3년의 안정적인 장기 정책자금

온렌딩대출은 귀사가 이용하시기 편리한 아래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KJB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JB 전북은행, 하나은행, citibank,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 외환은행, NH농협은행,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온렌딩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정보 종합포털사이트인 기업금융나눔몰 (<http://www.smefn.or.kr>)에서 더욱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빛의만평

- 김종두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길 기대하노라